



KIA '파죽지세' 2위 넘본다

주간 프로야구 전망

올 시즌 프로야구가 페넌트레이스의 70% 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KIA의 후반 기 막판 질주가 매섭다.

지난주 4승 2패로 삼성세를 타고 있는 KIA는 14일 현재 3위 한화와 1.5게임차, 2위 현대와는 3게임차로 4위를 달리고 있다. 1위 삼성과는 10.5게임차다 보니 선두 탈환은 어렵더라도 내친김에 2위까지 넘볼 태세다. 2위가 되면 플레이오프 직행권이 주어진다. 현재의 전력이면 2위의 꿈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13일 SK전서 올 시즌 8개 구단 가운데 최다인 22안타(팀 통산 시즌 3번째 선발전인 안타)를 기록하기도 한 KIA는 최근 들어 투타에서 완벽한 조화를 보이고 있다.

마운드에선 지난 5월 20일 LG전 승리 이후 5경기 연속 승리 투수가 된 김진우의 상승세가 큰 힘이다. 전반기 부상 이후 2달여만에 복귀한 김진우는 선발진의 한 축을 확실히 지켜내고 있다.

김진우-전병두-그레이서-장문석-한기주 등 업그레이드된 KIA의 막강 선발진은 타 구단의 '경계대상 1호'다.

여기에 마무리로 전향한 윤석민의 호투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역할을 하고

◇프로야구 중간순위 (14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54	31	3	0.635	-	2승
2	현대	48	40	1	0.545	7.5	2패
3	한화	45	40	2	0.529	9.0	4패
4	KIA	43	41	3	0.512	10.5	2승
5	두산	40	43	2	0.482	13.0	2패
6	SK	44	48	1	0.478	13.5	2패
7	LG	36	52	4	0.409	19.5	3승
8	롯데	33	48	2	0.407	19.0	1승

2위 현대와 3게임차 선발진 '업그레이드'

타선도 연일 '불꽃' 삼성과 3연전 '올인'

있다.

윤석민은 지난 6월 21일 두산전 세이브 이후 2승 9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타석에선 안타부른 1위로 올라선 이용규(109개)를 주축으로 장성호, 이재주, 이현곤의 불꽃타가 폭발적이다.

특히 최근 주축했던 '스나이퍼' 장성호의 타격감 회복이 무엇보다 반갑다.

지난 6일 현대전부터 '일시정지'했던

장성호의 방망이는 12일 SK전(4타수 1안타)을 시작으로 13일에도 계속된 SK전(5타수 4안타)서 타격감을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다.

KIA는 이번주 광복절부터 시작되는 광주 삼성전(15~17일)을 시작으로 주말(18~20일) 끝까지 롯데와 사직서 맞붙는다.

KIA는 삼성과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6승4패2무로 7개 구단중 유일하게 우위를 점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자 잡는 호랑이' KIA가 또 한번 천적의 면모를 과시한다면 선수권 진입도 노려볼만 하다.

15일 첫 삼성전엔 '특급 에이스' 그레이서(KIA)가 출격, 시즌 10승 사냥에 도전하고 삼성은 임동규로 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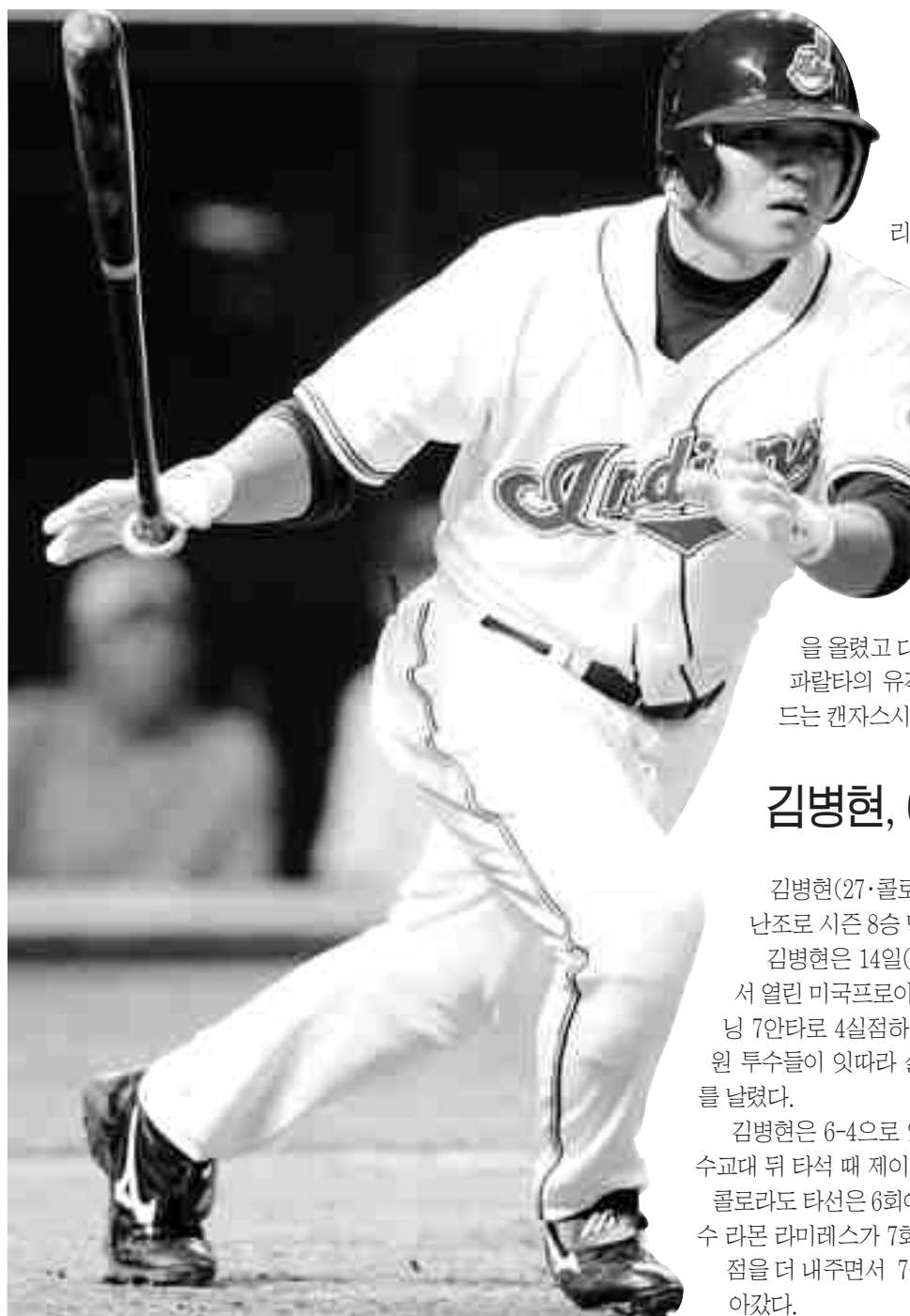
KIA로서는 선두 삼성보다 오히려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이 부담스럽다.

최하위 롯데에 5승 6패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특히 최근 롯데와의 원정 3연전서 전패의 수모를 당하기도해 뒷맛마저 개운치 않다.

하지만 KIA가 이번주 삼성과 롯데전에서 6할 승부만 한다면 4위 수성과 함께 2위 자리를 넘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팬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또 2루타 ... 7경기 연속안타



클리블랜드 6연승 이끌어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볼 오프 타격 감각으로 거침없는 안타 행진을 계속했다.

추신수는 14일(한국시간) 오후 7시 35분에 열린 미국 프로 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홈 경기에서 5타수 3안타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7경기 연속 안타이자 12경기 연속 출루.

시즌 타율은 0.327에서 0.322로 약간 떨어졌다.

추신수는 팀이 2-0으로 앞선 1회 말 무사 1, 2루에서 상대 선발 투수 허더슨의 낮은 투구를 푼다, 좌중간을 가르는 통쾌한 2루타를 터뜨려 2타점을 올렸고 다음 타자의 안타로 3루까지 진루한 뒤 차니 파타라의 유격수 땅볼로 득점에도 성공했다. 클리블랜드는 캔자스시티를 13-0으로 대파해 6연승을 달렸다.

김병현, 6이닝 4실점 8승 실패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승리 기회를 잡고도 볼펜 난조로 시즌 8승 달성에 실패했다.

김병현은 14일(한국시간) 콜로라도주 덴버 커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7안타로 4실점하고 6-4로 앞선 6회 타석 때 교체됐지만 구원 투수들이 잇따라 실점하면서 역전패를 당해 승수 추가 기회를 날렸다.

김병현은 6-4로 앞선 6회 상대 타선을 삼자범퇴 시키고 공수교대 뒤 타석 때 페이스 스미스로 교체됐다.

콜로라도 타선은 6회에 1점을 추가, 7-4를 만들었지만 바뀐 투수 라몬 마르티네스가 7회 1실점, 8회 톰 마틴과 매뉴얼 코파스가 3점을 내내면서 7-8로 승부가 뒤집혔고 김병현의 승리가 날아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판 니 "박지성, 성격도 실력도 훌륭"

"골닷컴"과 인터뷰 밝혀 "이번 시즌도 충분히 기대"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네델란드 출신 스트라이커 윌트 판 니스텔로이(31)가 팀 동료였던 박지성(25·맨유)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을 솔직히 밝혔다.

니스텔로이는 14일(한국시간) 축구 전문 사이트 골닷컴(www.goal.com)과 인터뷰에

서 "박지성은 성격도 좋고 움직임도 정신력이 훌륭하다.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며 "좋은 선수일 뿐 아니라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조인이 필요 없다"고 찬찬했다.

이날 미국 프로축구 레알 솔트레이크와 원정 경기장에서 이적 후 첫 골을 터트린 니스텔로이는 "박지성이 지난 시즌 워낙 잘해서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며 "박지성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이자 친구다. 잘 되길 바라고 잘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지성도 그렇지만 박지성의 어머니가 해주신 한국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해 아쉽다"며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다.

▲월드바스켓볼 필라진(한국-미국)(15:00·KBC)

▲프로야구(롯데-LG)(16:30·KBS SKY SPORTS), 〈KIA-삼성〉(17:00·MBC ESPN)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야쿠르트)(17:50·SBS스포츠)

동성고 양현중 뽑을까

내일 프로야구 신인 2차지명 KIA, 투수 4명 놓고 '저울질'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2007년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회의를 연다.

지역 연고에 관계 없이 실시하는 이번 2차 지명은 홀수라운드 전년도 성적의 역으로, 짝수라운드는 상위팀에서 하위팀으로 각 구단이 1명씩 지명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고, 9라운드까지 진행된다.

2007년도 2차지명 대상자는 고졸 예정자 531명, 대졸 예정자 177명, 실업(상무) 2명, 기타(해외진출 국내복귀선수 등) 5명 등 총 715명이다.

한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 KIA는 "좌완투수 양현중(동성고 3년)과 천안북일고 장요훈, 광주고 이동환, 고려대 이창욱 등 4명의 투수를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추신수·류현진 포함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윤곽'

9월 최종 엔트리 22명 확정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06하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 국가대표 윤곽이 드러났다.

대한야구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1차 국가대표 선수선발위원회 열고 이승엽(30·요미우리 지이언츠)과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김진우, 윤석민(이상 KIA) 등 1차 엔트리 31명을 발표했다.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볼 오프 타격 감각으로 거침없는 안타 행진을 계속했다.

추신수는 14일(한국시간) 오후 7시 35분에 열린 미국 프로 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홈 경기에서 5타수 3안타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7경기 연속 안타이자 12경기 연속 출루.

시즌 타율은 0.327에서 0.322로 약간 떨어졌다.

추신수는 팀이 2-0으로 앞선 1회 말 무사 1, 2루에서 상대 선발 투수 허더슨의 낮은 투구를 푼다, 좌중간을 가르는 통쾌한 2루타를 터뜨려 2타점을 올렸고 다음 타자의 안타로 3루까지 진루한 뒤 차니 파타라의 유격수 땅볼로 득점에도 성공했다. 클리블랜드는 캔자스시티를 13-0으로 대파해 6연승을 달렸다.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승리 기회를 잡고도 볼펜 난조로 시즌 8승 달성에 실패했다.

김병현은 14일(한국시간) 콜로라도주 덴버 커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7안타로 4실점하고 6-4로 앞선 6회 타석 때 교체됐지만 구원 투수들이 잇따라 실점하면서 역전패를 당해 승수 추가 기회를 날렸다.

김병현은 6-4로 앞선 6회 상대 타선을 삼자범퇴 시키고 공수교대 뒤 타석 때 페이스 스미스로 교체됐다.

콜로라도 타선은 6회에 1점을 추가, 7-4를 만들었지만 바뀐 투수 라몬 마르티네스가 7회 1실점, 8회 톰 마틴과 매뉴얼 코파스가 3점을 내내면서 7-8로 승부가 뒤집혔고 김병현의 승리가 날아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15일(화)
 ▲메이저리그(뉴욕M-필라델피아)(07:55·Xports), <샌프란시스코-샌디에고>(10:55·Xports)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광주시 동구 대의동 39-1(동부서원)

대지
 ●136평 건평 590평 (자해충,시상충)

매도가 협의결정

-연락처-
 010-4610-3763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내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할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 중앙로 대지 60평 4층건물 28억
- 충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 구남로 도철일 70평 3층 20억
- 문암동 중심사도동철 30평 170만
- 남동 대지25평 3층건물 2억
- 금호동 아파트단지 대지 330평 2850만
- 평촌동 대지 120평 200만
- 구월동 대지 78평 4층 6억
- 주월동 광안리 아파트 대지 250만
- 공산동 삼익아파트 대지 250만
- 영동구 3도동 1800평 한식점 6250만
- 중앙동 전철역 앞 대지 1800평 4500만
- 하남 우산동 상점지 24평 9억
- 하남동 아파트단지 대지 6800평 27억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 지산동 보전녹지 1천평 2400만(주박가)
- 문암동 대지 2500평 4500만
- 문암동 보전녹지 2500평 4500만(주박가)
- 광주대 안근지, 전 50평 4500만
- 회선 5000평 2억 5000만(주박가)
- 회선 5000평 2억 5000만(주박가)
- 회선 5000평 2억 5000만(주박가)
- 회선 5000평 2억 5000만(주박가)
- 회선 5000평 2억 5000만(주박가)

LCE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급)종합학원 임대 3층 265평 A급 시설 완비 전화 상담 요망

▲각층분할가능▲

- 3층 212평 88평 가능업종: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심형외과, 각종 학원등
- 4층 300평 30평 47평 가능업종:아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 5층 222평 114평 가능업종:스키아라운지, 호프, 당구장등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지의 길을 아는 사람들!! ☎(대)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AAA급 깨끗한 건물 임대매각

1. 광안동 477번 주유소용 건물용 대지 771평 임대용 건물용 회사사무실 용 건물용 동남향 2층 건물이 편리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각 6억 3천주인사정상 임대매각
2. 능성동 삼성회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임대 18억/회지가 12억
3. 화평동 티미빌렛 현재 정에서 전으로 운영중인 7층건물 대지 300평 임대 35억/회지가 15억

대물로 받은 아파트 5채 임대매각

1. 용문동 현대아파트 57평형 아파트 분양가 2억9천만 49평형 분양가 2억3천만 2백, 대물로 받은 부동산 건구 차원 분양가 이므로 매각가 조정 가능

2005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 업체 선정 기념!!

예식비 대폭인하!!

예식장회원, 공무원, 경찰, 기타민공서, 각종기관단체직원 예식비 20% DC 중...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www.ccgwangju.co.kr

결혼, 회갑연, 침수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예 약 ☎ 675-8500 접수중 (광주대학교 입구)

현대공인중개사

☎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라병원에서 50m 직점. www.85858949.co.kr)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중개

▲급히 구합니다▲

[건물]
 ●병원건물이니 병원으로 임대 가능한 건물 현금15억
 ●인데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지]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담양, 화순
 ●광안구 권리지역 상도, 본광
 ●광동구 2차단지 부지 토지
 ●투지 가치가 확실한 토지

▲급히 팔립니다▲

-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용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 학원, 정비공장, 식당, 창고부지 일각동, 자연녹지, 424평, 25m도로에 접, 평당2200만원
- 미복동 김대중컨벤션앞 생선복지 908평, 평당1800만원
- 매월동 유통단지 택지 농산물 공판장 앞 261평, 평당6000만원
- 카센타, 식당부지 광안구 초촌동, 영광지 35m도로면, 140평, 평당2800평
- 모텔-점대 대지 108평 건평600평 각실30개 매입10억 매도가 25억
- 물류창고부지 자연녹지, 비아 터지지 않은, 2400평 평당7500원(분할가능)
- 창고 공장부지 210평, 평당 110만원 벽지등 주거지역
- 공장 창고부지(투지도가능) 권리지역, 광안구 양산동 1600평 대형차량 진입가능 14만원
- 일원부지:급속동, 대지 237평, 평당 135만원
- 광동구 간도리 상가부지:61평 평당 7500만원